

그림에도 멋진 신세계가 우릴 기다린다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가온과 온세미로

요즘은 '가온'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음을 본다. '가온누리' '가온마을' 등등 동아리나 마을의 이름에서 많이 보인다. 세종시에는 가온마을이라는 아파트 단지도 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외국어 일색으로 아파트 이름을 짓는 시대에 우리말로 지었으니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그러나 '가온'은 아직 표준어로 등재된 단어는 아니다.

옛말에서 가온대를 이르는 말로 '가온'이라는 말을 썼다. '가온대'에서 유래돼 '세상의 중심지'란 뜻으로 언중에게 알려져 쓰이고 있지만 등재되지 않은 관계로 비표준어임을 알린다. 곧 표준어에 등재될 것을 믿는다. 사전에서는 '가온(加溫: 온도를 높임)밖에 나와 있지 않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온세미로'라는 말이 있다. '가르거나 쪄 개지 않고 생긴 그대로'라는 뜻이다. 사전에 등재된 순우리말이다. 예문으로는 '속리산의 정이품송은 온세미로 고상하고 멋지다' 혹은 '우리를 거꾸로 달리 할아 버지 식탁에는 조그 두 마리가 온세미로 올라 있었다'와 같이 쓴다. 참으로 좋은 우리말인데 요즘은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중부대 한국어학과 교수 · 한국어학회 회장



조우석 칼럼

평론가 전 KBS이사

한국인 평균수명이 처음으로 90세를 찍었다. 여성은 정확하게 90.7세, 남성은 86.3세라고 며칠 전 보험개발원이 발표했다. 하지만 요즘 이런 뉴스는 부각되지 않는다. 대신 인구절벽을 짐짓 걱정하고 "2030보다 할배할매가 많은 게 정상이나?"고 묻는 게 우리 일상이다. 그런 걱정을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비판론자들이 득시글 거리는 것도 문제는 문제다.

그러니 미래 예측도 종종 엉터리다. 100년 전만 해도 인구통계학자들은 인간 평균수명의 최대치는 65세라고 단언했다. 동시에 우리 인류 앞에 펼쳐질 신세계를 말하기보다는 따뜻하고 좋았다는 식으로 과거의 주변을 기웃거리려는 게 보통이다. 그런 게 현실적으로 위로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사정이 그러하니 TV에선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프로그램을 연방 틀어준다.

독서 시장도 그렇다. 서구식 개발에 길들여진 삶에 의문을 던지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오래된 미래' 혹은 미국 자연주의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완전한 삶' 같은 책이 여전히 인기다. 이런 와중에 우리 부지불식간에 지구온난화나 산성비 등 환경재앙 담론에 노출된다. 이럴 때마다 한 번 더 읽으면서 낙관주의적 신념으로 재무장하게 되는 것



영국의 과학 저술가인 매트 리들리는 저서 '이성적 낙관주의자'에서 "기술의 진보는 빈곤과 질병을 줄이고 행복을 높인다"며 "인류 번영에 대한 비관론은 근거 없다"고 주장한다.

진 책이 있다.

바로 진화생물학자 매트 리들리의 명저 '이성적 낙관주의자'(김영사, 2010)라는 문제제기다. 내겐 진화생물학에서 미래학을 아우르는 성경과도 같은 책이다. 환경 타령하는 좌파 사기꾼과 여기에 묻어가는 위선자를 놀려먹는 재미도 있다. 사실 저자는 독설가여서 생태주의자인 미국 전 부통령 앨 고어, 대학 좌파의 원조 노엄 촘스키 등을 모두 거침없이 규정한다. '총 균 쇠의 저자 제러드 다이아몬드 같은 열치기는 말할 것도 없다.'

그들 대부분은 비판론자 혹은 종말 종독론자들이란 공통점이 있다. 그 원조 격이 1960년대 초 "제왕의 화학 물질 DDT가 먹이사슬로 유입돼 생태계를 망친다"고 경고했던 '침묵의 봄'의 저자 레이철 카슨이다. 1972년 '성장의 한계'란 보고서를 펴냈던 로마클럽도 왕년엔 엄청 유명했다. 하지만 물어보자,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카슨의 예언은 지금 논란의 대상이고, 로마클

럽의 예견은 몽땅 거짓으로 들쭉났다. 1800년 이래 인류 인구는 여섯 배 늘었지만 실질소득은 아홉 배 증가했다는 게 역사의 진실이다.

'이성적 낙관주의자'에는 한국의 사례도 자주 등장하는데, 1955년에 비해 우리 수명은 무려 26년 늘었다(2005년 기준). 또 "(1955년 이래 지구촌의) 부자는 더 부유해졌지만 가난한 사람의 형편은 더 큰 비율로 좋아졌다"고 이 책의 저자 매트 리들리는 말해 준다. 사회 양극화란 말도 알고 보면 호들갑이란 얘기다. '이성적 낙관주의자'에는 과거에는 삶이 더 단순했고 좋았다는 거짓말을 흔들어 주는 내용도 수두룩하다.

일테면 매트 리들리는 1만4000년 전 고대 이집트의 예벨 사하바에서 발견된 공동묘지의 사례를 제시한다. 현장에서 발굴된 시신 59구 중 24구는 적이 던진 창이나 화살을 맞아 사망했다. 놀랍게도 그중 무려 40구가 여자와 어린애들이었다. 유사 이래, 아니 불과 100~200

년 전까지도 인류의 삶은 참혹했다. 대량 살육이나 영아 살해, 아니면 질병과 기근이 인류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소수다. 여전히 좌파연하는 박마우스들이 수두룩하다.

아시는가? 원시공산사회를 예텐동산으로 설정했던 건 칼 마르크스가 처음이 아니다. 좌파의 정신적 스승이자 썬 위선자 장 자크 루소가 원조다. 프랑스대혁명 전부터 그는 "자연 상태의 인간은 욕심 없고 평화로웠다. 탐욕근심폭력은 문명의 산물이다"고 떠벌렸다. 그림에도 250여 년 전의 촛불 난동이던 프랑스대혁명 때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손에 쥐고 나온 인간들이 그렇게 많았더니 실로 머리 아픈 일이다.

2008년 광우병 파동에서 보듯 예나 지금이나 선동이 먹히는 세상일까? 오늘 새삼 밝힌다. 멋진 신세계는 이미 펼쳐져 있다. 우리가 모르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울더스 헉슬리는 디스토피아를 말하는 풍자도 멋진 신세계란 말을 썼지만, 내가 말하는 신세계는 뉘앙스가 다르다. 말 그대로 역사적 실체로서의 멋진 신세계에 우리 살고 있고, 앞으로 이보다 더 멋진 세상이 온다는 뜻이다.

그러니 부디 이 꼴저 꼴벌벌 다 보고 오래 살 일이다. 그런 화가 황주리가 얼마 전 어떤 글에서 던졌던 말이다. 냉소가 아니다. 그럴 가치가 있는 세상과 섞여서 놀자는 제안이다. 맞다. 인간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겠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지지고 볶으며 사는 우리 삶의 중간에 간혹 머리를 멀리 들어 보는 것도 건강에 좋으리라. 니콜라이 고골리의 '외투에서 훔쳐낸 애기는 일단 이걸로 마무리 짓는다.'

건설사 '명칭 개선 동참 선언' 진정성 있나



데일리 Talk

박상훈 산업경제부 기자

서울시를 중심으로 대형 건설사가 국적 불명 아파트 이름의 개선을 위해 뜻을 모은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건설사들이 마치 명칭 개선 동참 선언식에 참석한 것을 잊은 듯한 행보를 보이면서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외국어 조합으로 만들어져 한 번에 뜻을 알기 어렵고 점점 길어지는 아파트 이름으로 불편이 커져가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선 것은 서울시다. 2022년부터 공동주택 명칭 개선을 위한 사전조사·실태 분석서인 인식조사에 나섰고 건설업체·학계·조합장 등이 참석한 공개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했다.

과거 아파트 이름은 지역명과 건설사 이름을 결합해 알기 쉽게 지어졌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아파트 브

랜드를 출시하고 '에듀' '파크' '퍼스트' 등 팻네임(아파트의 특징을 부각시켜 브랜드명에 추가적으로 붙이는 별칭)이 더해지면서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두 개 이상의 건설사가 시공한 단지의 경우엔 단지명 이 더 길어진다.

최근 서울시는 전문가·조합건설사 의견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명칭 지정 가이드라인 안(案)'을 발표하고 주택성·공공성·경제성·편의성·자율성을 명칭 작명 5대 원칙으로 삼았다. 어려운 외국어 사용 자제·우리말 이름 발굴·고유 지명 활용·팻네임 자제·최대 10자 내외 글자 수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되 다수가 선호하는 명칭으로 제정하는 자율성도 존중했다.

다만 이는 사실상 권고 수준에 그치고 강제성은 전혀 없다. 단지명이 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고 조합원의 동의를 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서울시 외 지자체와 대형중견 건설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동주택 명칭 개선 동참 선언식'은 지난해 12월 28일 '공동주택 명칭 개선 3차 토론회' 이후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앞서 서울시는 삼성물산 건설부문·현대

건설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GS건설·롯데건설·DL이앤씨·현대엔지니어링·금호건설·두산건설·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공사(SH공사) 등에 참석을 요청했다.

이 중 금호건설을 제외한 모든 건설사가 토론회에 참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이끌어 가는 주요 건설사로서 아름다운 주거 문화와 건설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명칭 개선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서울시 담당자는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가 동참했기 때문에 오히려 참여하지 않는 건설사가 시대에 뒤처지는 것으로 취급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

물론 시의 권고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팻네임 사용을 지양해 귀감이 되는 건설사도 있다. 한화 건설부문은 아파트 브랜드 '포레나'를 출시한 이후 팻네임을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 중심의 네이밍 전략을 추구해 왔다.

서울에서는 조합원들이 지역명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강북 권역에서도 '포레나 노원' '포레나 미야' 등 팻네임을 사용하지 않고 브랜드 이름과 지역명

을 조합해 다섯 글자를 넘지 않는 단지명을 지었다. 경기도에서도 '포레나 광고' '포레나 킨텍스' '포레나 북수원' 등의 명칭을 사용했다. 최근 선보인 브랜드 광고에서도 건설업체에 만연한 팻네임 문화의 문제점에 대한 화두를 던지면서 화려하게 포장된 이름이 아닌 '주거의 가치에 집중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반면 동참 선언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서울시와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던 일부 건설사들은 사업 수주를 위해 태도를 바꿨다.

'여의도 1호 재건축'이라는 상징적인 사업을 수주한 대우건설은 공작아파트 재건축 단지에 '썬 더 블랙 에디션'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해 아쉬움을 남겼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수주권이 한창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에는 현대건설이 '디에이치 여의도 퍼스트'를 제안한 상태다.

서울 밖으로 지역으로 넓혀서 보면 삼성물산이 부산 축진2-1구역 조합에 '레미안 에스펠리스 부산'을 단지명으로 제안했다. '단지명 간소화'를 스스로 약속한 대형 건설사들이 사회적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psk@skyedaily.com

SkyeDaily

발행·편집인 조정진 주필 황중택
인쇄인 임재청 편집국장 고동석

(주)스카이데일리
창간일자 2011년 9월 2일
등록일자 2011년 7월 18일
등록번호 서울아01703(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가50131(일간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6(충정로1가 청양빌딩) 7층
TEL 02-522-6595 Fax 02-522-6597
홈페이지 www.skyedaily.com
구독료 월 15,000원/년 180,000원

고객의 마음에 웃음을!
SK가스가 드리겠습니다

국내 LPG산업의 선두에 안주하지 않고 21세기의 끊임없는 도전에 맞서 전진하는 SK가스가 잊지 않고 실천하는 것은 '고객만족' - SK가스는 국내 최고의 청정에너지 회사, 동아시아 에너지 메이저로의 Vision을 갖고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실천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World Best를 추구하는 SK가스 -

SK 가스

TEL: (02)6200-8114 FAX: (02)6200-8118
Homepage: http://www.skgas.co.kr